

마태 3, 16~17

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.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.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 오시는 것을 보셨다.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.

”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,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.“